

현제명 박사론

나운영

〈고향생각〉(해는 저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산들바람〉(산들바람이 산들 분다…), 〈그집앞〉(오가며 그집앞을 지나노라면…) 등으로 널리 알려진 현제명(玄濟明, 1902~1960) 선생은 홍난파 선생과 더불어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물론 이 두 분이 우리나라 최초의 음악가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제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서양음악사를 더듬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 백우연 (1880~1950)
- 이상준 (1884~1948)
- 김형준 (1884~ ?)
- 김영환 (1892~1977)
- 박태준 (1900~1986)
- 채동선 (1901~1953)
- 윤극영 (1903~1988)
- 계정식 (1904~1975)
- 정사인 (1881~1958)
- 김인식 (1885~1962)
- 박윤근 (1891~1989)
- 홍난파 (1898~1941)
- 안기영 (1900~1980)
- 현제명 (1902~1960)
- 김재훈 (1900~1951)
- 권태호 (1903~1972)



이와같이 여러 음악가들이 있으나 그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낸 분이 홍난파, 현제명 두 선생이기 때문에 이 두 분을 비교하면서 그의 생애와 예술을 논해보려 한다.

다음의 연표를 보면 현 선생은 홍 선생보다 5년 후배이나 미국 유학은 현 선생이 홍 선생보다 4년 먼저 갔으며, 조선 음악가협회가 조직되었을 때 현 선생은 귀국 2년 후였고, 홍 선생은 미국 유학 직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 음악협회」(1931. 2. 11)의 조직 부서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이사장 : 현제명

이 사 : 홍난파(상무), 김영환, 채동선, 독고선, 김인식, 안기영

발기인 : 현제명, 홍난파, 채동선, 안기영, 최호영, 독고선, 홍재유, 김원복, 윤성덕, 김인식

연대	홍 난 파	현 제 명
1897	경기도 수원 남양에서 출생	
1902		경북 대구에서 출생
1915	동경 음악학교 예과 입학	
1922	연악회 창설	
1923		평양 송실전문학교 졸업
1925	제1회 바이올린 독주회 개최 음악잡지 「음악계」 발행	
1928		미국 Gunn 음악학교 졸업(석사) 연희 전문학교 교수(1943년까지)
1929	일본 동경 고등음악학원 본과 졸업 귀국, 중앙보육학교 교수, 「조선동요 100곡집」(상편) 출판	

1931	조선 음악가협회 상무이사 미국 Scherwood음악학교 연구과 입학	조선 음악가협회 이사장 작곡집 제1집 출판
1933	귀국, 이화여자 전문학교 강사 경성보육학교 교수, 조선동요 100곡집(하편) 및 조선가요 작곡집 출판, 홍 현 양씨의 작곡발표회 개최	작곡집 제2집 출판 홍 현 양씨의 작곡발표회 개최
1934	빅타 레코드 음악고문	
1936	경성 중앙방송국 양악책임자, 방송 관현악단 지휘자	어린이 찬송가 편집 출판
1937		미국 Gunn음악학교에서 박사학위
1938	「음악만필」 출판	
1941	별세	
1942		콜롬비아 레코드 청반, 적반 예술가
1943		경성음악학원 원장
1945		고려교향악단 이사장, 경성음악학교 교장
1946		국립 서울대학교 예술대학 음악부장
1949		한국 음악가협회 이사장
1950		오페라 「춘향전」 작곡 발표
1953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학장
1954		오페라 「왕자호동」 작곡 발표
1960		별세
1965	대한민국 문화훈장 추서	대한민국 문화훈장 추서

또한 「홍·현 양씨 작곡발표회」(1933. 10. 29)의 출연자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독창... 안보승, 채선엽, 이유선
- 합창... 경성 보육학교, 연희 전문학교
- 지휘... 홍난파, 현제명
- 찬조... 홍성유(바이올린 독주)

이밖에도 두 분은 음악회 때마다 함께 출연했으니 그 기록을 더듬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1. 「중앙보육학교 주최 제 3회 교내음악 대 연주회」(1930년 11월 1일...바이올린 독주-홍난파, 테너 독창-현제명)
2. 「조선 음악가협회 제 1회공연」(1931년 5월 28일)...홍성합창 지휘-현제명, 바이올린 2중주-홍난파, 장동선. 반주-김원복
3. 「경성 보육학교 주최 제 3회추계음악회」(1935년 10월 30일)...바이올린 독주-홍난파, 테너 독창-현제명

그러나 작품활동에 있어서 홍 선생은 동요, 가곡을 비롯하여 관현악곡(관현조곡), 바이올린 독주곡(하야의 성군, 동양풍 무곡, 로만스, 애수의 조선), 관현악부 독창 조곡(나그네의 마음), 합창곡(봄노래) 등을 발표했고, 현 선생은 가곡, 합창곡을 비롯하여 오페라 「춘향전」, 「왕자호동」 등을 발표했다.

II

선생은 성격이 명랑 쾌활하고 활동적이어서 연주활동이나 작곡활동 외에도 학교를 설립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교향악단을 창설했을 뿐만 아니라 재단법인 한국음악원 이사장, 국립극장 운영위원, 서울시 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집행위원, 대한민국 예술원 영구회원, 한국 음악협의회 이사장(국제연합 음악협의회 소속), 유네스코 한

국위원회 부위원장 등 수 많은 직책을 맡았으며 한편 유네스코 국제음악회의, 동남아시아 국제 음악가회의, 미국 음악 교육 연합회 제2차 총회 등의 한국 수석대표로서 참석하는 등 세계를 누비고 다녔으니 국제적 인물이었다고 말해도 좋을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선생은 수완이 좋고 포용력이 강해, 휘하에 이유선, 김성태, 문학준, 이인범, 김생려, 정희석 등등 기라성과 같은 애 제자를 항상 거느리고 있었으며, 반대파까지도 포섭하는 비상한 능력이 있어 그야말로 음악계의 총사령관(?)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줄로 생각된다. 오늘날 서울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음악대학이 눈부신 발전상을 보여 주게 된 것이나 또한 국립 교향악단이나 서울 시립 교향악단이 교향악 운동에 주동적 구실을 하게 된 것은 모두 선생의 공으로 돌린다 해도 이에 정면으로 도전할 사람은 별로 많지 않으리라 믿어지니 역시 인물이었다고 말할 수 있으리라.

선생은 많은 사업을 남기었으니 음악 사업가라 해도 좋을 듯하나 뭐니 뭐니 해도 선생은 사업가이기 전에 작곡가요 작곡가이기 전에 성악가였다고 나는 생각한다.

한 예를 들어 일제 말기에 징용을 피하기 위해 「경성 후생실내악단」이 조직되어 지방 순회공연을 다닐 때의 에피소드를 한 토막 소개한다.

단장인 선생이 마지막 프로에 독창을 하는 날에는 의례 마스크를 하고 아무와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서 무대 뒤를 조용히 걸어 다니다가 <니나> 또는 <희망의 나라로>, <고향생각>등을 감명깊게 노래하는 것을 나는 여러 차례 목격했다. 즉 노래하기 전에 목을 쓰는 것이 좋지 않다는 점과, 노래하기 전에 정신을 통일시킨다는 점 등 그 마음 자세를 우리는 본받아야 할 줄로 생각한다. 성악가가 연주 직전에 이야기를 많이 해서는 절대로 좋은 연주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무언중에 가르쳐 주는 귀중한 예라고 생각된다.

선생의 발성은 부드럽고, 아름답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언제나 인기를 독차지했었다. 또 이보다 몇 해 전인 1940년 일본 동경에서 나카다 우고(中田羽後)가 지휘하는 <메시아> (헨델 작곡) 공연 때의 일이 생각난다. 내가 이동일, 이동훈, 김순제 등과 함께 이 합창단원으로 있을 때 선생이 테너 독창자로 출연한 일이 있었다. 우리들은 조선 사람이 독창자로 초빙되어 연주하게 된 것이 매우 자랑스럽게 여겨졌던 것이다. 특히 메시아 곡에 나오는 테너의 레치타티보와 아리아는 선생의 음성에 잘 맞는다고 생각되었다.

III

선생은 많은 가곡과 두 편의 오페라를 작곡했다. 그중에서 <고향생각>이나 <그 집 앞>은 소위 창가에 가깝고, <산들바람>, <오라>는 서정 소곡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듯하다. 이밖에 <니나>나 <나물 캐는 처녀>, <희망의 나라로>는 건전한 의미에서의 또는 넓은 의미에서의 팝송(?)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런데 <니나>가 타나라 작곡의 <니나>와 제목이 같고 테마도 같으나 박자만이 달라 표절 혐의를 받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하겠지만, <나물 캐는 처녀>가 슈베르트 작곡의 <들장미>(월계꽃)의 표절 또는 모작 혐의를 받은 것은 수궁이 안 간다. 이것은 아마도 악의에 찬 중상이라고 해두는 것이 옳으리라, 어쨌든 선생은 많은 가곡을 남겼으나 뭐니 뭐니 해도 <오라> (앞산과 시내는 옛 같이 푸르고...)가 대표작이라고 나는 단언하고 싶다. 나는 이 노래를 중앙고보 1학년 때 김형준 선생(김원복 선생의 아버님, 가곡 <봉선화>의 작사자)에게 배웠었는데 참으로 아름다운 곡이라고 생각된다. 역시 성악가가 작곡한 노래가 되어서 그런지 자연스럽게 부를 맛이 있어 좋다.

한편 오페라 <춘향전>이 있는데 이것은 한국 최초의 오페라로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으며 따라서 우리나라 창작 오페라 운동에 하나의 큰 자극제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잠시 언급하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으니 즉 「작사 작곡의 문제」이다. 선생의 가곡 중에는 작사 작곡으로 된 것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과연 작사가 먼저 된 것인지 작곡이 먼저 된 것인지가 의문이다. 왜냐하면 윤극영 작곡의 <반달>이나 안기영 작곡 <마의태자>가 그렇듯이 그 당시에는 먼저 곡조를 써놓고 나중에 가사를 적당히 붙이는 예가 많았다는 점을 생각할 때 이런 부질없는 추측을 하게 된다. 어찌 됐든 간에 가사와 곡조가 잘 어울리니 다행스러운 노릇이다.

이와는 반대로 선생의 가곡 중에는 노산 이은상 선생의 작시로 된 것이 비교적 많은데 특히 <가고파>는 김동진 작곡의 <가고파>와는 전혀 다른 맛이 나는 곡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김동진 작곡의 곡에는 시의 후반부가 생략되어 있는데 시가 너무 길어서 잘라 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선생은 원시를 존중하여 끝까지 작곡했을 뿐만 아니라 소위 통장가요通章歌謠식으로 작곡했기 때문에 매우 고전을 겪은 듯한 느낌이 없지 않다. 이제 참고삼아 원 시에서 생략된 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물 나면 모래판에서 가재 거이랑 달음질하고
물 들면 뱃장에 누워 별 헤다 잠들었지
세상일 모르던 날이 그리워라 그리워
여기 물어보고 저기 가 알아보나
내 뉘엔 즐거움은 아무데도 없는 것을
두고 온 내 보금자리에 가 안기자 가 안겨
처자들 어미되고 동자들 아버지 사이
인생의 가는 길이 나뉘어 이렇구나
잃어진 내 기쁨의 길이 아까워라 아까워
일하여 시름없고 단잠 들어 죄없는 몸이
그 바다 물소리를 밤낮에 듣는구나
벗들아 너희는 복된 자다 부러워라 부러워
옛 동무 노 젓는 배에 얻어올라 키를 잡고
한 바다 물을 따라 나명들명 살까이나
맞잡고 그물 던지며 노래하자 노래해
거기 아침은 오고 거기 석양은 저도
찬 얼음 센바람은 듣지 못하는 그 나라로
돌아가 알몸으로 살거나 깨끗이도 깨끗이

선생은 이 장편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안단테 4/4 - 아니마토 3/4 - 알레그로 3/8 - 레치타티보 4/4 - 아리아 - 프레스토 등으로 속도와 박자를 바꿔 164소절이나 되는 대곡을 지었으니 그 노고가 짐작이 간다. 아마도 우리나라 가곡 사상 이처럼 긴 곡은 또 없을 줄로 생각된다.

끝으로 「난파 기념사업회」나 「안익태 기념사업회」와 같이 「현제명 기념사업회」도 차츰 본격적인 사업을 시작함으로써 선생의 업적을 길이 찬양하고, 그 유지를 계승하는 후학들이 날로 증가되기를 바란다. 「현제명 기념관」 같은 것이라도 마련하였으면 하는 아쉬움이 크다.

<1973. 10. 새 교육>

[부록] 장 크리스토프

나는 음악학교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영화 구경도 다니고 소설책도 읽기 시작했는데 영화는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 위고의 「레 미제라블」이었고 소설책은 톨스토이의 「크로이체르 소나타」(The Kreutzer Sonata)와 테니슨의 「이녹 아든」(Enoch Arden)이었다.

특히 「크로이체르 소나타」를 끝까지 읽었을 때 나는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다. 이성異性이 그만 무서

워졌다. 온갖 세상이 추악해만 보였다. 그러나 「이녹 아든」을 읽고 나니 살 것만 같았다. 독서毒書라고만 느껴졌던 「크로이체르 소나타」와 플라토닉한 첫사랑의 애한을 그린 성서性書라고 느껴졌던 「이녹 아든」에서 나는 아직까지도 잊혀지지 않는 많은 것을 배웠다.

그런데 형의 권유로 로망 롤랑의 「장 크리스토프」(Jean-Christophe)를 읽기 시작한 것은 아마 음악학교를 나온 뒤였다고 기억된다. 남보다 책 읽는 것이 좀 더딘 나는 이 대작을 끝까지 읽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르겠다.

베토벤을 모델로 삼은 이 서정적 장편소설은 천재적 청년작곡가가 프랑스에 와서 환멸을 느껴 다시 여러 나라를 유전하며 고생을 겪은 끝에 마침내 높은 예술적 경지에 도달하는 정신적 발전을 묘사한 것인데 나는 그 작가정신에 큰 감명을 받았다.

오늘날 나를 만든 책—「장 크리스토프」를 적극적으로 권하고 싶다.

(1975. 10. 여성중앙)